



지난 16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'대홍수' 제작보고회에서 감독·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왼쪽부터 배우 박해수, 김병우 감독, 배우 권은성·김다미.

사진=넷플릭스

## “영화 끝날 때쯤 제목의 의미 생각해 보게 될 것”

영화 '대홍수' 김병우 감독 작품 소회

“재난·SF 장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

시각 특수효과로 감정 전달 중요했다”

넷플릭스 영화 '대홍수'의 연출을 맡은 김  
병우 감독이 공개를 앞두고 제작과정과 작  
품소회를 밝혔다.

영화 '대홍수'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 
마지막 날,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  
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 가는 아파  
트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공상과학(SF)  
재난 블록버스터다. ‘더 테러 라이브’

‘PMC: 더 병커’ 등 극한상황을 소재로 한  
영화를 연출했던 김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 
김다미·박해수 등이 열연을 펼친다.

김 감독은 지난 16일 서울 CGV 용산아  
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“재난  
과 SF 장르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영화”  
라며 “‘대홍수’라는 제목이 영화의 의미를  
함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. 장르와 상  
황을 충분히 알릴 수 있으면서 영화가 끝날  
때쯤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될 것  
같다.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”고 단순한  
재난물 이상의 차별점을 소개했다.

그리면서 생동감 넘치는 물의 움직임 구

현과 관련해 “시각 특수효과(VFX)가 어  
떻게 영화에서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 
가 가장 중요했다”고 강조했다.

현실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에  
대해선 “아파트도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 
지점이 있다고 생각했다. 곁으로 봤을 때는  
비슷해 보이지만, 각자 개인의 우주를 갖고  
있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 보여 주고 싶었  
다”며 각 캐릭터의 섬세한 내면을 담아낸  
과정을 전했다.

배우들도 수중 촬영이 많은 작품인 만큼  
준비과정을 털어놨다.

인공지능 연구원 안나 역을 맡은 김다미

는 “물속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 스쿠버와  
수영을 배우는 등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”  
며 “실제로 물이 있었던 현장도 있지만, 물  
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.  
수중에서 보이는 모습과 몸동작을 연구해  
야 했는데, 그게 어려우면서도 연기 내내  
재미있었다”고 밝혔다.

안나 구출임무를 맡은 인력보안팀 희조  
역의 박해수 역시 “물속에서 눈을 떠야 하  
는 장면이 있었다. 물속에서 눈을 떴을 때  
의 거리감을 익히려 노력했다”고 전했다.

넷플릭스 영화 '대홍수'는 19일 개봉된다.

노성수 기자



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·20일 정기연주회 '합창과 문학의 만남-너를 두고'를 개최한다. 사진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.

사진=세종문화회관

## ‘관람객 600만’ 돌파 국중박 특별한 공연 ‘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- 삶의 무도회’ 20일 개최

최근 연간 관람객 600만 명 돌파라는 새 기  
록을 쓴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기념한 특  
별공연을 한다.

국립중앙박물관은 “20일 오후 6시 관내  
역사의 길에서 박물관문화향연 특별공연  
‘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-삶의 무도  
회’를 개최한다”고 18일 밝혔다.

이번 공연은 오스트리아 노벨문학상 수  
상작가 페터 한트케 작품을 한국적으로  
재해석했다. 원로배우 박정자, 김선화, 강  
만홍 등이 열연을 펼친다. 특히 배우들은  
정해진 무대 없이 박물관 일상을 무대 삼  
아 관람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  
정이다.

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“올해 국립  
중앙박물관은 개관 아래 가장 많은 관람객  
을 맞이한 특별한 해”라며 “박물관을 아끼  
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  
다. 앞으로도 매력적인 전시와 더불어 다양  
한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서로 교감하는 공  
간으로 거듭나겠다”고 밝혔다. 노성수 기자



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

‘합창과 문학의 만남- 너를 두고’

19·20일 이틀간 세종체임버홀

‘시대의 문인’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작  
품이 겨울밤 무대에서 합창으로 피어난다.

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·20일 양일  
간 서울 광화문 세종체임버홀에서 정기연  
주회 ‘합창과 문학의 만남-너를 두고’를 개  
최한다. 이번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

나태주의 작품에 새로운 선율을 더해 합창  
으로 선보이는 무대다.

나태주 시인의 딸인 나민애 서울대 교수  
가 시 낭송과 사회를 맡아 문학과 합창이  
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.

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맑고 정제된  
하모니로 나 시인의 대표시 ‘너를 두고’를  
비롯해 11편으로 만들어진 합창곡과 단원  
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3곡을 들려준다.

전석 2만 원. 티켓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 
홈페이지(www.sejongpac.or.kr) 또는  
전화(02-399-1000)로 하면 된다.

노성수 기자

## 합창으로 피어난 나태주 詩